

2020 생활과 윤리 뿌시기

안녕하세요 윤리충입니다. 윤리가 점점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평가원과 수능에서 출제되는 소위 '킬러문제'가 교과과정에서 알 수 없거나 교과 과정 내의 필요 이상의 지엽적인 부분을 출제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사소한해보이는 선지, 개념을 비튼 선지 등 시험장에서 보면 어려운 선지들은 이미 연계교재나 기출에 내용이 충분히 실려 있는 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선지들을 맞추기에 조금 더 철저해지기 위해서는 선지의 중요도를 매기고, 선지를 익숙한 문제의 맥락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연계교재에서는 너무나 확실한 정답 선지 때문에 아까운 매력적 오답 선지들을 무의식적으로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윤리 뿌시기는 제시문이나 개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선지로 풀기라는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시문이나 개념도 좋지만 줄글로 있으면 솔직히 안읽게 되니까요. 적중은 걱정마세요. 미약하지만 이번 평가원에서도 온정적 간섭주의, 갈등의 인간 안보 부분이 생운 뿌시기에서 예상한대로 출제되었으니까요. 그럼 윤리 뿌시기와 함께 열공하세요!

각설하고 2020 생활과 윤리 뿌시기의 구성을 안내하겠습니다.

-고난도 선지 뿌시기: 각 시즌별로 연계교재, 기출, 변형 문제의 ox선지를 담아보았습니다. 납득이 안가시는 부분은 해당 시즌의 인용자료를 직접 구해 병행하며 학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난도 선지 뿌시기 빠른 정답: 해설 보기 전 일단은 정오만 체크하고 충분히 고민해보라는 생각에서 답지와 해설을 분리했습니다.

-고난도 선지 뿌시기 해설: 교과과정 내의 내용과 더불어 교과 외의 흥미로운 내용도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고난도 제시문 뿌시기: 제시문을 그대로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충분히 독해하시길 바랍니다. 한 지문 안에 색깔이 다른 부분은 이항대립이거나 공통점이니 유념하시면서 심화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독해 문제 뿌시기: 생활과 윤리의 경우 선지보다 맥락이 중요한 독해 문제들이 몇몇 있습니다. 각 시즌 별로 한두개 실어보았습니다. (시즌4엔 x)

시즌별 특징

vol1- 연계편입니다.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선지들을 종합하였습니다.

vol2- 기출 편입니다. 금년 기출을 제외한 역대 기출 선지 중 엄선하여 골랐습니다.

vol3- 금년 기출 편입니다. 올해의 평가원과 교육청 기출의 선지를 분석하여 트렌드를 깨우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분량 때문에 ebs 파이널의 문항과 자작 문항을 몇 문제 실었습니다.

vol4- 파이널 자작 변형입니다. 이전 시즌의 선지를 변형하거나, 제시문과 날개의 개념을 선지로 만들었으니 그저 맛있게 소화하시면 됩니다.

학습방향은?

풀면서 다시 볼 가치가 있는 선지와 헷갈리는 선지에 1차로 밑줄 친 후 해설과 비교. 며칠 후 다시보며 또 틀리거나 납득 실패시 별표. 그 후 또 반복될 시 형광펜으로 칠한 후 관련 개념을 심화 학습하여 수능 쉬는 시간에 훑은 후 만점 받기
선지 뿌시기 말고도 제시문 뿌시기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수능 때는 선지 변형보다 제시문 변형이 더 킬러일 확률이 높아요.

사회윤리/인권존중/평화윤리

롤스는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을 조정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2020수특] ()

롤스와 니부어는 모두 정의는 사회적 차원에서 실현 불가능한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보았다 [2020수특] ()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 마을, 국가 공동체는 모두 인간의 선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2020수특] ()

로크는 국가에 대한 보은의 감정에서 준법의 의무가 나온다고 보았다 [2020수특] ()

소로는 정부가 부당한 법을 개정하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았다 [2020수특] ()

로크는 정부의 역할을 개인선이 아닌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2020수특] ()

로크는 합법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다 [2020수특] ()

로크는 어떤 정부의 관할권에 속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았다 [2020수특] ()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만이 불복종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2020수특] ()

롤스는 모든 가난한 사회에 대해 원조해야한다고 보았다 [2020수특] ()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할 의무를 지닌다고 보았다 [2020수특] ()

갈통은 평화는 비폭력적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020수특] ()

모건소(현실주의)는 전쟁은 비도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2020수특] ()

니부어는 사회 정의 실현은 부정의로 이익을 얻는 집단에 대항하는 힘이 형성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2020수완] ()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정적 정의에 대해 자발적 거래에서 올바른 것이란 일종의 이익과 손해의 중간이라고 보았다 [2020수완]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것은 동등함이고 부정직한 것은 동등하지 않음이라고 보았다 [2020수완] ()

롤스는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을 부정의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2020수완] ()

롤스는 무지의 베일이 정의의 원칙에 대한 만장일치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2020수완] ()

벤담은 처벌의 직접적인 목적은 위법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2020수완] ()

벤담은 처벌이 덜 해로운 위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은 처벌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2020수완] ()

루소와 베카리아는 모두 형벌이 시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2020수완] ()

로크는 국가의 구성원은 모두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았다 [2020수완] ()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생산 노동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2020수완] ()

싱어는 자신과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하여 전세계로 원조위 의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2020수완] ()

노직은 풍요한 사회의 시민이 가난한 사회의 시민을 돕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2020수완] ()

롤스는 최빈국의 고통받는 사람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2020수완] ()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해 비민주적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2020수완] ()

갈통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2020수완] ()

갈통은 국가 안보 보장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2020수완] ()

노직은 해외의 빈민을 원조할 때는 개인의 소유권리가 항상 침해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2020수완] ()

니부어는 사회 구조는 각 개인의 도덕성 함양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2020수완] ()

롤스와 소로는 모두 정부의 정책이나 법은 정의라는 상위의 가치에 합당해야 한다고 본다 [2020수완] ()

니부어는 개인의 선의지는 사회적 갈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2020수완] ()

로크는 롤스와 달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정부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20수완] ()

왈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방어 전쟁은 부정적이라고 보았다 [2020수완] ()

고난도 선지 뿌시기 해설

1. 자애와 효도는 형제자매관계에서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필요되는 덕목이며 부자자효라고 일컫는다. 부모는 자녀에게 아랫사람에게 주는 사랑인 자애를 베풀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실천해야 한다.
2. 천륜관계는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와 같이 끊을 수 없는 혈연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부부는 천륜이 아니라 인륜의 시초이다.
3. 권면과 신의는 모든 관계에서 요구되는 덕목이다. 형제자매관계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쉽게 생각해서 다른 관계라고 해서 권면과 신의를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 싱어와 테일러가 모두 부정할 입장이며 선지의 주장은 생태중심주의의 입장이다. 싱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유정적 존재까지라고 한정했으므로 부정할 것이고, 테일러 역시 자연 전체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에 한해 도덕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단 자연 전체에 대해 직접적 의무는 없지만 불간섭의 원리에 따라 자연에 불필요하게 해를 가하는 것은 결국 개별 유기체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이므로 지양해야한다고 보았다. 이는 간접적 의무이다.
5. 테일러는 자연의 모든 존재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생명이 없는 바위같은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6. 두 가지 부분에서 싱어가 긍정하지 않을 표현인데, 우선 첫 번째로 싱어는 모든 동물을 도덕적 존중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다. 싱어는 동물 중에서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인 쾌고감수능력을 가진, 즉 유정적 존재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도덕적 존중의 경계가 '굴과 새우 사이의 어딘가'라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약간의 TMI. 두 번째로 만약 선지의 '모든 동물'을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존재들'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다른 종들을 '동일하게 대우' 해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도덕적으로 동일하게 대우라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냥 동일한 대우라고 하면 긍정하기 힘든 표현이다. 간단한 예시로 강아지를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하기 위해 인간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또한 간혹 동일하게와 동등하게를 구분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평가원에서 둘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같은 뜻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의 차이는 요점이 아니다.
7. 심층생태주의가 긍정할 내용이다. 생태중심주의에서는 개별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와 더불어 무생물의 내재적 가치까지 고려한다. 생명공동체 그 자체를 중시한다는 말이 개별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다. 네스는 모든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는 점에서 동등하며 인간은 모든 자연적 존재들과 공생할 때 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8.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 자체가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다고 보지 않았다. 싱어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을 어디까지나 개별 유기체까지로 한정했으며 생명공동체 자체를 그 자체로 선을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본 것은 생태중심주의이다. 그러나 만약 '개별 공동체의 합인 생명 공동체는 고유한 선을 지닌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긍정할 것이다. 생명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은 결국 개별 생명체를 존중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접적 의무로서의 생명공동체 존중은 긍정한다고 볼 수 있다.
9. 싱어에게 쾌고감수능력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 즉 필요충분조건이고 레건에게 쾌고감수능력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레건은 개체가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쾌고감수능력뿐만 아니라 욕구, 의식, 지각, 기억 등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만족시키는 것은 1살 이상의 일부 고등동물이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은 생윤에서 많이 쓰이는데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편하다. 필요조건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또는 요구되는 조건이고 충분조건은 어떤 것을 하기에 이것만으로 충분한 조건이다. 윤리에서는 충분조건은 부분집합으로 필요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때 충분조건과 필요충분조건은 혼용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
10.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인정한다. 단 이때의 의무는 간접적 의무이며, 생명 공동체 그 자체를 위해 생명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를 위해 생명공동체를 침해하지 말라는 의무,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체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저야 하는 간접적 의무라고 보았다.
11. 선지는 싱어의 입장으로, 레건은 이익관심이 도덕적 고려 대상 설정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고 보았다.
12. 둘 모두 쓸 수 있는 표현이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았으며, 레오폴드는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와 물을 포함하는 대지로 확장하였다.
13. 싱어에게 도덕적 고려 의무의 판단 기준은 동정심이 아니라 쾌고감수능력의 유무이다.
14. 기계론적 자연관으로 생명을 이해하는 것은 데카르트에 대한 설명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으로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반면 테일러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고유한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등하다는 평등 논거로 활용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통해 인간의 지향은 다른 것들의 지향을 포함하므로 우월하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5. 셋 모두 긍정할 내용이다.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도덕적 배려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다. 칸트는 인간의 동정심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을 배려하는 간접적 의무를 주장했기 때문에 긍정할 것이고, 싱어와 레건도 만약 도덕적 고려의 대상 여부라면 논란이 되겠지만 (일부 동물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표현

독해 문제 뿌시기

5.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 B, C의 행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이성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집단의 이기적 충동의 힘이 이성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성의 힘만으로는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는 전제 정치에 비폭력으로 대응하면서 사랑과 평화라는 종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전제 군주의 자비심에 호소하였다. ○ B는 봉건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개인의 양심과 결단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테러를 감행하였다. ○ C는 식민 지배에 반대하면서 자국민들과 단결하여 비폭력적으로 지배국의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였다.

<보 기>

- ㄱ. A는 정치적인 힘 대신에 양심에만 호소하는 잘못을 범했다.
- ㄴ. B는 자신의 의도를 조직적인 정치적 저항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 ㄷ. C는 비폭력적으로 대응하여 정치적인 힘을 활용하지 못했다.
- ㄹ. A와 B는 집단적 저항이 필요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정답-5번 니부어의 입장 고르기

A- 비폭력적 수단으로 개인의 양심에만 의지 B- 폭력적 수단으로 개인의 양심에만 의지 C- 비폭력 수단으로 집단적 저항

=>강제력이 꼭 폭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음 ∴ A와 B는 집단적 갈등 해결에는 부적합, C는 집단적 갈등 해결에 적합.(비폭력적인 강제력)

ㄱ- A는 정치적 힘 대신 양심에만 호소함-> 개인 윤리에는 적합하나 사회 윤리에는 불충분함

ㄴ- B는 조직적인 정치적 저항 없이 개인의 양심에만 의지함-> ㄱ이랑 같은 맥락

ㄹ- A와 B 모두 집단적 저항 활용x->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이나 선의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강제력 필요. 이 문제에서는 집단적 저항=강제력 틀린 선지

ㄷ- C는 비폭력적으로 대응했지만 정치적 힘 발휘하여 사회윤리 실현에 올바른 자세

고난도 제시문 뿌시기

어디까지 어떤 사람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가 전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 정부에 복종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말하겠다. 그러한 향유가 그와 그의 상속인을 위한 영구적인 토지 소유이건, 단지 1주일 동안 머무르는 것이건, 단순히 대로상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그 정부의 영토 내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복종의 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로크

로크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도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이 어떤 나라의 영토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따라서 복종의 의무가 생긴다고 본다.**

절제 있는 행위를 해봄으로써 절제 있게 되며, 용기 있는 행위를 해봄으로써 용기 있게 되는 것이다. 품성적인 덕은 중용을 택하여 행동하는 성품으로, 지나침과 모자람의 악덕 사이의 중간이다. 즉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이 중간이자 최선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다른 자연적 존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자기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결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으며, 자신의 생명 보존 목적 이외에 다른 생명체의 자기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 다른 생명체의 자기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예외적인 사실이며, 이에 대한 다른 생명체의 동의에 관계없이 인간 자신의 고유한 목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요나스

사람은 죽음과 함께 더 이상 **세계-내-존재**가 아니게 된다. 죽음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세계 안에서 존재자들과 관계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존재가 죽음과 함께 생명이 없는 물질적인 사물이나 동물의 시체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죽음과 함께 **현존재**는 '고인(故人)'이 되며, 그러한 존재로서 장례, 매장 등의 예식을 통해 **추모해야 할 존재**가 된다. 고인의 유족들은 그를 '경건하게 추모하면서' 그와 함께 존재한다. 이와 같이 현존재는 죽어서도 현존재와의 공동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하이데거

테일러는 인간의 활동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이러한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절차적 규칙들을 우선성의 원리 형식으로 제시한다. 그것은 자기방어의 원리, 비례(균형)의 원리, 최소악의 원리, 분배적 정의의 원리, 그리고 보상적(복원적) 정의의 원리이다. **자기 방어의 원리**란 도덕적 행위자에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이것은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유기체들에 대항해 도덕적 행위자가 그들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비례(균형)의 원리**란 인간의 부차적인 이해관계(명품 소비를 위한 동물 가죽)와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생존)가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한다는 원리이다. **최소악의 원리**란 인간의 부차적인 이해관계이지만 문명사회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해온 것들과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열린 자세로 동식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분배적 정의의 원리**란 인간의 기본적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불가피하게 동식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원리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육식보다는 채식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보상적(복원적) 정의의 원리**란 **최소악의 원리와 분배적 정의의 원리가 적용될 때 비인간적 유기체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리이다.

-테일러

노턴에 의하면 '강한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 대상의 가치가 인간의 '감각적 선호'에 기초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감각적 선호란 개인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에 의해 적어도 일시적으로 갖고 있거나 표현하는 어떤 욕구나 필요를 의미한다. 이것은 이익 관심을 단순히 느낌(감각)에 따르는 선호나 욕구의 문제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찰이나 이의 제기 같은 심사숙고와는 거리를 두게 되며, 단지 사람들이 단순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만 관심을 두는 경제적인 관점을 채택하게 된다. 반면 '약한 인간 중심주의'는 **비인간 존재와 자연 대상이 감각적 욕구는 물론, 심사숙고와 이성적 검토를 바탕으로 성찰적 선호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성찰적 선호는 인간의 욕구나 필요가 사려 깊은 검토에 기초하고, 이성적으로 채택된 세계관과 조화를 이루며, 건전한 형이상학에 의해 구체화되며, 과학적 이론과 미학적 가치, 그리고 도덕적 이상에 토대를 둔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동은 상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이 상품을 생산하는 관계 속에서 노동은 그 자체와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한다. 이런 사실은 노동이 생산하는 대상이, 곧 노동의 산물이 낯선 존재로서, 생산자와 무관한 권력으로서 노동과 맞선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의 생산물은 하나의 대상 속에 고정된, 사물화된 노동인 바, 이는 노동의 대상화이다. 노동의 이러한 현실화는 국민 경제학적 상태에서는 현실성의 박탈로, 대상화는 대상의 상실과 대상에 대한 예측으로 나타난다.

-마르크스